

이병주의 대일인식과 한일협정의 기록*

정미진**

- 차례 -

1. 서론
2. '일어 세대'의 '대일(對日) 콤플렉스'
3. 한일협정의 기록과 운명론
4. 결론

[국문 초록]

이 글은 이병주의 대일인식을 살피고, 소설 『그해 5월』에서 한일협정을 기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이병주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하고, 일제의 학병까지 직접 경험한 이병주이기에 그가 가지는 대일인식은 열등감과 패배감, 죄의

* 이 연구는 2018년도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초·보호 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legonoli@naver.com

식과 반성적 태도가 뒤엎힌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병주는 어떤 민족에 대해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는 태도 자체를 배격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감정에서 치우치기 쉬운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함에 있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그해 5월』에서 이병주는 사실적 자료를 단순하게 배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의 논평을 동원하여 한일협정을 비판적으로 기록한다. 이때에 일본인 인물을 내세워 한일협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타자화를 통한 객관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병주의 운명론적 시각은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자 사실적인 삶의 표현 방식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이병주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을 적대시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일본의 발전상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 견지에서 우리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병주의 대일인식의 핵심일 것이다.

주제어 : 이병주, 『그해 5월』, 대일인식, 콤플렉스, 죄의식, 한일협정, 객관화, 운명

1. 서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줄곧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던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을 감행한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비단 현재의 사태에 대한 대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과거

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았던 일본의 태도와 식민지의 국민으로 35년을 살아야 했던 한국 역사의 울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을 것이다.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른바 ‘65년 체제’¹⁾로 설명된다. 해방 20년 만인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즉 ‘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지만 그것은 안보와 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역사를 포기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온전한 의미의 ‘정상화’일 수 없었다.

그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을 이병주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병주는 소설 『그해 5월』²⁾에서 박정희 정권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다. 『그해 5월』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5·16쿠데타에 의해 희생된 군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창작 당시 불과 2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을 가진 5·16 쿠데타의 평가가 불가능한 탓으로 다만 “희생된 군상의 실상을 적어 역사의 심판대에 제공할 자료를 기록한 것”이라고 첨언한다. 그에 걸맞게 『그해 5월』의 서사는 1961년 5·16쿠데타에서 시작되고, 1979년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끝이 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해 5월』의 대부분은 1960년대를 기록하는 데 할애되고,³⁾ 특히 한일협정이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기록된다.

1) 65년 체제란 첫째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계열화에 기반한 한미일 유사 삼각동맹체제(미일동맹과 한미동맹)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을 봉쇄/포위하고, 둘째로는 이 체제 유지와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 문제의 분출 등을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하거나 관제 가능한 영역에 가두고 영토문제를 ‘봉합’하며 한일경협을 통해 개발주의를 공유하는 체제를 뜻한다. 제도적으로는 ‘한일합방(1910)’ 무효와 청구권 소멸,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역사를 죽임으로써 양자 사이의 상극을 해소한 체제를 말한다.(권혁태, 『한국의 일본 인식의 ‘비틀림’』, 『현대문학의연구』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72면.)

2) 『신동아』에 1982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총 69회 연재되었다. 이후 기원원에서 단행본이 출간된다. 이 글은 2006년 한길사에서 출간된 전집을 대상으로 한다.

3) 한길사에서 간행된 전집 분량으로 따지자면 전체 6권 중 5권이 1960년대를, 마지막 6권만이 70년대를 다룬다. 이병주 본인이 그 이유를 언급한 바는 없지만, 여권을 내어주지 않아 일본행조차 불가능했던 이병주가 1971년부터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이것이 국내 정세에 대한 공백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그해 5월』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병주라는 한 개인이 한국의 근현대를 살면서 겪어야 했던 질곡의 사건이자 소설가 이병주의 문학 저변에 깔린 현실 인식의 근간이기도 한 ‘일제 학병’과 ‘필화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욕망을 부풀려가던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식민지의 청년들까지 전쟁에 동원했는데, 그것이 1943년 일제의 학도지원병제이다. 명목상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일본제국의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는 허울 좋은 ‘지원’병 제도였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이병주 역시 1944년 학병으로 중국의 소주에 배치되어 일본군으로 복무하다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학병 경험은 이병주 문학에서 내용상으로는 물론 작품 내부에 흐르는 의식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1961년 혁명 재판에 의한 필화 사건은 이병주로 하여금 ‘기록자’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 생활 중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며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2년 7개월 만에 출감한 뒤인 1965년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발표한 것이다. 자신이 10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기록자로서의 ‘소명(召命)’이며, ‘역사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린 결과라 할 수 있다.⁴⁾ 그런 의미에서 『그해 5월』은 이병주 개인의 가혹한 운명의 한 축을 기록한 것임과 동시에, 기록자로서의 소설 쓰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박정희 독재정권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학병세대로 대표되는 이병주의 대일(對日)인식을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병주에 대한 두 가지 논의를 시발

4) “소명(召命)이란 것은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발동한다. 안네 프랑크는 나치의 잔악한 작태를 잊지 않게 하는 소명을 받았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어처구니없는 소행을 기록하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

나는 박정희를 우두머리로 한 범죄집단의 행적을 안팎으로 관찰하고 판단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기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열도당도 않은 인간을 어떤 법률 전문가도 납득할 수 없는 ‘공동정범’이란 술어를 찾아내어 애매모호한 근거로써 어찌 15년 징역을 구형하고 1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106면)

점으로 삼는다. 먼저 정호웅은 “이병주의 인물들은 일본인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을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소설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는 “이병주 소설이 다루는 조선인 학병 문제의 핵심이 개인의 윤리 문제라는 사실과 깊이 관련”을 가진 때문이라고 설명⁵⁾한 바 있다. 또한 강심호는 이병주에 대한 논의가 인색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⁶⁾을 거론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병주가 가진 대일인식이 당대의 작가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 ‘예외성’과 ‘독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⁷⁾

이병주는 소설가로 활동하면서도 소설 이외에도 칼럼과 에세이 역시 꾸준히 써왔다. 소설과 달리 저자의 인식이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글들에서 이병주는 줄기차게 동시대의 정치·사회 이슈나 문학과 역사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명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병주의 에세이와 칼럼 등을 통해 이병주의 일본 혹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그것을 다시 소설 『그해 5월』에서 한일협정을 기록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비단 일제의 피식민 국가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방과 전쟁, 혁명과 독재, 냉전이라는 혼란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 측

5) 정호웅, 「이병주 문학과 중국 학병 체험」,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중인문학회, 2013, 25-26면. 한편 정호웅은 이병주가 ‘민족의 성격을 추상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일본 민족의 성격을 문제 삼아 비판한다든지,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여겼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병주의 인물이 일본인에 대해 민족적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6) “민족주의라는 당위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한일관계와 해방 후의 정국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그러한 반성에는 소위 ‘학병세대’의 자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서 한일관계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위험스러운 줄타기를 보는 듯 친일과 민족주의의 경계선상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2.)

7) 손혜숙 역시 이병주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는 한 통로로, 소설과 수필의 상호텍스트적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이병주의 대일시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손혜숙은 이병주의 산문을 대상으로 이병주가 일본에 대한 맹목적 비판보다 자아 각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고 설명한다.(「이병주 산문 연구」, 『문화와 융합』40,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408-410면)

면에서 스스로를 ‘한국 역사의 고깃길마다 당한 사람’이라 칭했던 이병주의 대일인식을 살피는 것은 이병주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어 세대’의 ‘대일(對日) 콤플렉스’

이병주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가로놓인 대일 콤플렉스에 대한 슬픈 감정을 토로한 바 있다. ‘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멘 사람은 일본인’이라는 통념에 대해 들은 이병주는 여행지에서 일본인으로 오해 받는 것이 싫어 카메라를 활용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고도 끝내 ‘내 속의 대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슬픈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다.⁸⁾ 그리고 대일인식과 그에 따른 콤플렉스 역시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한다. 이병주에 따르면 ‘친일 아니면 반일’로 확고하게 구분되었던 한문 세대, “일본을 팔호 속의 외국으로 취급”하는 영어 세대와 달리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일본 사상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일어 세대는 한문 세대와 영어 세대 사이에 끼어 있었고, 일본은 이들에게 반감과 함께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반성’까지를 불러왔다.⁹⁾ 그리고 해방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모도 일어 세대가 가진 감각의 변이로 곧장 이어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진보적 지식인의 사상적 거점은 여전히 일본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대일인식에 관한 논의에서 일어 세대를

8) 이병주,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 『1979』, 세종문화사, 1979, 251면.

9) 이병주는 일어 세대를 “한일합방 10년 후 탄생하여 1945년에 25세의 청년이 된 나와 같은 세대”라고 규정한다. 해당 글에서 ‘일어 세대’라고 처음 언급한 이후 줄곧 ‘일본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병주가 세대 구분을 하는 기준이 언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어 세대’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다소 복잡하고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이병주는 그것을 콤플렉스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에세이 「일본을 존경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에서 이병주는 일본에 대해 한국인이 가진 ‘미묘한 콤플렉스’의 출발을 일제 강점기에서 임진왜란으로 소급한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국토와 전멸 지경에 민생이’ “유전처럼 되어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오랜 반감의 역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한국의 발전과 국가적 위상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화적 역량까지 갖춘 이른바 ‘문화 대국’인 일본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족적 중오의 대상인 일본을 존경하고,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병주의 견해는 역사 청산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와 맞물려 논란의 여지를 가진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일본의 정치가가 영리할 뿐으로 도의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 뒤에는 ‘영리한 일본인에게 제일 동포를 차별하고 가혹한 취급을 하는 그 따위 열등 성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들의 자학과 자멸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진의가 뒤따른다. 제국주의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을 식민지였던 국가의 국민을 자국민 이상으로 대접한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성인적(聖人的)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영리한 일본이 성인적 성격까지 갖추면 지나치게 완벽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설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정리한다. 결국 이병주는 일본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⁰⁾ 일본의 도덕

10) 김성환은 1960년대 “도덕적 우위를 전면에 내세운 저널리즘 글쓰기는 식민지 기억을 극복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도덕성 결여를 지적하는 이병주의 논의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어문논집』61, 중앙어문학회, 2015, 374면.)

성 결여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정리하는 데에서도 이병주의 대일 콤플렉스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개인을 놓고 볼 때, 내 자신의 편견인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일본인 등과 비교해서 우리의 자질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되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한국인을 집단적으로 他民族과 비교하면 뭔가 落後性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예가 일본인과의 대비에서 나타나는 감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自尊心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론 日本人, 한국인 할 땐 웬지 우리편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질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떤 우연으로서 이러한 토양, 이러한 기상,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 살다가 보니 이런 한국인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항상 모두들 두고 쓰는 표현 때문에 시초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우리 민족이, 몇 대로 이 땅에 살다가 보니 부득불 이러한 한국인이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¹¹⁾

『월간조선』이 기획한 이어령과의 대담 자리에서도 이병주는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낸 한국 민족의 낙후성을 언급한다. 특히 일본과 대비하여 그 낙후성의 정체를 설명하는데, 이병주에 따르면 그것은 ‘소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연’의 작용과 ‘역사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제·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잃어낸 상대적 낙후성은 식민 본국과 식민 국가가 가지는 ‘차이’에 관한 인식 때문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유학을 통해 그 간극을 직접 체험해야 했던 식민지 청년—이병주가 ‘일어 세대’라고 구분하는—의 뇌리 깊숙이 박힌 열등감과 패배감과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1) 이병주·이어령, 「한국·한국인, 日本·日本人」,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82.8. 252면.(모든 강조체 글쓴이)

일어 세대 중 특히 학병 경험자의 대일인식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병으로 동원된 후 귀환한 경우에 개별적이며 실질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학병을 조선의 민족투사거나 민족을 위한 희생자로 자신의 서사를 재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그런 자리에서 학병 경험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운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은 “학병세대가 낳은 학병문학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학병체험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자전적인 작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자전적 색채가 가장 적은 작품”이며, “개인을 넘어 학병세대의 정신적 풍경을 묘사하는 데까지 도달”¹³⁾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단 『관부연락선』뿐 아니라 학병 경험을 다루는 이병주의 서사는 대개 학병이 개인에 미친 내면의 파장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해 5월』에서 학병의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노구치 다케시와 내통한 혐의로 끌려간 이사마가 노구치와의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을 하는 와중에 잠깐 정신을 잃고, 명료하지 않은 의식 사이로 지나가는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학병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는 장면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양자강을 보고 서 있는 청년이 있었다.

—네가 누구냐.

그가 물었다.

고개를 돌린 청년을 보고 이사마는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청년시절의 얼굴이었는데 상대방은 차가운 눈으로 이사마를 보았다.

—결국 그 꼴이 되려고 살았느냐.

이것은 그 눈초리를 본 이사마의 느낌이었다.¹⁴⁾

12)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7.

13) 조영일, 「학병서사 연구」,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14면.

14) 이병주, 『그해 5월』4, 131-132면.

이병주는 자신의 학병 출정을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과오”¹⁵⁾로, 학병으로 복무했던 자신을 “노예”¹⁶⁾로, “한 마리 버러지”¹⁷⁾로 표현하는 등 죄의식을 드러내며 자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병 동원 중 일제 간부후보생에 선발된 데 따른 이병주의 죄의식을 김윤식은 ‘노예의 사상’¹⁸⁾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그해 5월』에서 이사마가 신념과 현실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던 때에 마주한 학병 시절 자신의 모습은 일본의 용병으로 비겁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죄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학병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는 일본을 논하는 자리에서 학병이었던 자신의 과거는 물론 학병 경험이 배태한 죄의식을 동시에 소환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병주의 대일인식은 일어 세대의 패배감에 학병 경험에서 생겨난 죄의식이 착종된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 후진된 일본”이라는 “불쾌”한 도식¹⁹⁾을 이야기 하는 이병주의 내면에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죄의식이 배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병주는 『그해 5월』에서 남정현의 필화 사건을 다루는데, 1965년 3월 『현대문학』에 발표한 소설 「분지」의 ‘과격하 선동’과 ‘반미적 경향’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소설가 남정현이 구속된 사건이다. 문학작품 중 반공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인 만큼 사회적 파장도 컸거니와 그 자신이 필화를 경험했던 만큼 이병주는 몇 페이지에 걸쳐 『분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면밀하게 다룬다. 그리고 ‘반미적’이라는 남정현의 체포 이유를 두고 분노한다.

15) 송우혜, 「이병주가 본 이후락」, 『마당』, 1984. 11. 58면.

16) 이병주, 「8월의 사상」, 『소설 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276면.

17) 이병주, 「변명」, 『마술사』, 한길사, 2006, 94면.

18)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187면.

19) 이병주, 「한·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 북한문학연구소, 1974, 88면.

무원칙한 반미도 무원칙한 친미도 같이 배척해야 한다. 미국은 어느 면으로서도 깊고 넓고 크다. 친미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갖가지 요소가 있는 반면 반미적으로 만드는 요소도 있다. 예를 들면 제퍼슨·링컨의 미국은 존경할 수 있어도 알 카포네의 미국, 조 매카시의 미국은 긍정할 수가 없다. 그만한 사정으로 볼 때 어떤 국면의 미국에 중점을 두어 미국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한다는 것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미국을 비판하는 마음 바닥엔 미국을 찬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을 역설적으로 미움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은인이란 의식에 사로잡히다보니 그로 인한 피해에 더욱 더 반발하는 심정이 될 때도 있다.²⁰⁾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냉전 체제하에서 주변부라 할 수 있는 여타 국가들 역시 이 총성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특히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 내내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냉전 체제의 한 축인 자유진영으로의 편입 과정²¹⁾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자유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미국적’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명백한 이유로 작용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실천했으며, 한국 정부는 원조국 미국에 이의 없이 협력했다.²²⁾

이런 상황에서 이병주는 “무원칙한 친미도 무원칙한 반미도” 배척의

20) 이병주, 『그해 5월』 4, 한길사, 2006, 194-195면.

21) 이종남, 「전후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전파에 관한 연구」,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22) 일본의 상황은 이와는 대별된다. 이병주의 말을 빌려보면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하고도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이른 이유를 미국을 적절하게 이용했다는 데서 찾고, “일본은 형식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지배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병주, 앞의 글, 93-94면.)

대상이라 선언한다. 이것은 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이분법적으로만 드러나야 한다는 의식 자체에 대한 거부라 할 수 있다. ‘깊고 넓고 큰’ 미국에 대한 인식을 ‘친미’와 ‘반미’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피상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내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때, 타자일 수밖에 없는 한 국가에 대해 일관된 정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과의 과거사에 관해서도 이병주는 “과거를 추궁해야 하겠지만 조상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물을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백지화하기엔 그 과거가 너무나 심한 상흔을 남겨 놓았다”²³⁾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사 청산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심정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²⁴⁾ “괜한 감상에 사로잡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²⁵⁾는 것이 대일관계에 있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될 건 없지요. 국가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사과한다고 한 사과는 별볼 일 없습니다. 한국이 빨리 훌륭한 나라가 되어 일본이 보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하나의 예가 프랑스와 독일과의 관계입니다. 서독은 번영하고 프랑스는 다소 낙후된 상태에 있었는데 드골이 들어서자 서독은 드골의 청이 있

23) 위의 글, 93면.

24) 한일회담이 재개되면서 『사상계』에서는 1964년 이후 매호 빠지지 않고 한일회담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감정적 태도가 앞세워진 함석헌의 글에서 일본은 분노의 대상이었고, 이는 당시 대중의 반응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김성환, 앞의 글, 352-355면)

25) 이병주, 『일본(日本)을 존경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암, 1986, 31면.

을 때마다 그야말로 성의를 다해 프랑스를 도운 겁니다. 꼬나풀이 붙고 무슨 조건을 앞세운 원조가 아니라 자기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드골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된 겁니다. 전비를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거지요. 그런데 제4공화국 시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무나 관대하시고 위대하셔서 일본의 회개를 문제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개인으로선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²⁶⁾

위의 인용문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지사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페 마담의 물음에 이사마의 일본인 친구 사카키가 하는 대답이다. 일본인인 사카키 역시 ‘개인으로서선 사과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한일협정에 대해 “이웃끼리 국교를 정상화해야 하는 기분으로선 찬성이고, 그러나 한 10년쯤은 일본관 상관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기분으로선 불찬성”²⁷⁾이라는 이사마의 솔직한 발언 속에서도 한일관계에 접근하는 이병주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외교 정상화와 개인적 차원의 감정 문제는 분리되어야 하며, 사카키가 지적하듯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니만큼 그에 따르는 ‘국가적 차원’의 진실된 반성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주는 일본을 한국과 대척되는 지점에 배치하지 않는다. 적대감과 죄의식 사이에는 일제의 억압에 영합했다는 반성이 있고, 열등감과 패배감 아래에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과거는 괄호 속에 묶어 놓고 반성하고, 자신의 과오의 원인을 찾아내어 각성하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²⁸⁾는 이병주의 반복되는 주장이 작가 의식의 한계로 지적받을 소지

26) 이병주, 『그해 5월』 4, 34-35면.

27) 위의 책, 103면.

28) 이병주, 『일황의 사과를 받는 마음』,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암, 1986, 62면.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졌던 이병주가 일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가감 없이 기술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나 그에 따른 비판에 대한 의식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의 작품에 뒤따르는 ‘회색의 사상’이라는 비판에 ‘보다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몸부림’이라고 응수²⁹⁾했던 이병주이니만큼 여러 글에서 발견되는 일본에 대한 비판 의식과 식민사관의 영향력이 혼재된 모순된 기술을 이병주의 일본 인식이 가지는 한계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오히려 일어 세대의 일본 인식에 나타나는 분열적 특징과 이러한 기록의 증언이 가지는 진정성에 대한 역설적 표시인 동시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데올로기적 기록이 아니라 모순적인 상황과 인식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기록³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해 5월』에 나타난 한일협정 기술 방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3. 한일협정의 기록과 운명론

주지하다시피 한일협정은 냉전체제 아래에서 자유주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 전략에 대한 응답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가난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차관을 도입하려는 경제적 목적 아래에서 3억 달러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으로 오랜 식민 지배라는 참혹했던 역사를 조급히 덮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상황이 이러하고 보니 1964년 한일회담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여전히 일제의

29) 이병주, 『불행에 묻든 세월』, 『사랑을 위한 獨白』, 회현사, 1979, 207-208면.

30) 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식민 지배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재식민지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병주는 『그해 5월』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한 투쟁의 과정을 시기별로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쪽바리는 물러가라”, “데모가 난동이나, 쿠데타가 난동이나” 등과 같은 10여 개가 넘는 시위 현장의 구호들을 직접 나열하면서까지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날짜별로 촘촘하게 정리된 한일회담 재개와 한일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한일회담을 추진한 것은 애국심도 아니고 절실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한 것도 아니”기에 ‘불미스러운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캐내는 것이 기록자의 책무³¹⁾라고 여긴 결과이다. 즉 이병주는 『그해 5월』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한일협정에 대한 ‘사료의 집성’을 실천한 셈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20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에 맺어진 한일협정은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굴복’이자 ‘굴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와 같은 인식은 이병주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평화선의 문제에 있어 양보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화선을 철폐하고 말았다. 학생들이 굴욕외교라고 떠들어댔 만하다.

또 한 가지 석연할 수 없는 것은 당당하게 청구만을 문제 삼지 않고 무슨 까닭으로 ‘경제협력’이란 문제로 대처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다.

청구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되지만 경제협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호의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문제가 흐리멍텅하게 되어버린다. 요컨대 일본의 방식에 따라 경제협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일본의 방식대로 받은 경제협력이 한국의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

31) 이병주, 『그해 5월』4, 앞의 책, 173면.

드는 결과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한일 간이 언제나 부자연한 관계에 있어선 안 되는 것이고 국교정상화는 있어야 할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모처럼의 국교정상화가 이런 형식과 내용으로 되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³²⁾

이병주는 평화선 철폐 조항과 경제협력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일협정의 성격이 그 출발부터 굴욕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한일협정이지만 평화선의 철폐는 분단 한국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의 입장만이 적용된 결과이고,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님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협정은 엄밀히 말해 위치가 전도된 채 맺어진 ‘부자연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부자연한 관계를 감수하고 격렬한 반대를 제압하면서까지 서둘러 한일협정을 맺은 데에는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국교정상화에 대한 필요만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개입되었으리라는 짐작이 작용한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그러했듯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은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병주는 한일협정이 ‘졸속’임을 박정희 그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감행한 이유를 “푼돈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것과 원조국 “미국에 대해 ‘굿 보이’가 되고자” 했던 데서 찾는다. 그리고 박정희가 “지각있는 정치가였다면 팽배한 굴욕외교 반대 데모를 이용하여 유리하게 협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계엄령까지 선포하면서까지 “일

32) 위의 책.

33) 이병주, 「박정희 편, 닳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다」, 『대통령들의 초상』, 앞의 책, 153면.

본에 영합”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병주는 박정희의 쿠데타와 대통령 당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일제 하급 장교 출신 다카키’를 강조하는데, 윤보선이 사상 논쟁이 아니라 박정희가 일본군 하급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까지 예측한다. 또한 사카키의 동생은 일본에서 “다카키 대위의 일본 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한 사람이 중심인물인” ‘다카키 대위를 지키는 모임’의 회원으로 설정되고, 사카키는 그들이 박정희를 “일본 최후의 무인”으로 “귀중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전한다. 박정희의 정체성을 ‘일본의 군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국익을 빌미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상하리만큼 서둘렀던 박정희의 노력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해 5월』에서 이병주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내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³⁴⁾이다. 먼저 역사적 자료를 직접 담론 내로 끌어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감정을 기술³⁵⁾하거나, 사건을 비평하는 논평자의 위치에 놓인 인물을 설정해 사건의 이면까지 기록하고 전달하는데, 특히 『그해 5월』의 경우 ‘나’, 이사마, 성유정을 비롯하여 영국인 기자 프레더릭 조스, 일본인 사카키, 노구치 다케시 등 여러 인물을 동원하여 사회적 상황

34) 『그해 5월』의 서술 전략에 관해서는 손혜숙의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비평문학』52, 한국비평문학회, 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손혜숙은 5·16을 소재로 하는 이병주의 소설 세 편을 분석하면서 『그해 5월』의 경우 사실성을 강조하여 역사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이때 공소문, 속기록, 진술, 신문기사, 다양한 인물의 논평적 담론, 작가의 체험 및 사적 기억, 허구적 상상력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35) 충분한 사료를 통해 사건과 사건을 살아야했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생기기 되는 결여가 바로 사건 당사자의 기분과 감정이다. 이병주가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건과 함께 파문된 사람들의 “원한”이며, 그 원한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감”으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듯하다.(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상대박사학위논문, 2017, 97면.)

이나 사건에 대해 평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령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두고 전직 『타임스』 기자인 영국인 프레더릭 조스³⁶⁾의 입을 빌려 ‘박정희 씨’의 당선은 한국 국민을 위해 잘된 일이고, 박정희 씨가 당선되어 대통령으로서 실패해야 쿠데타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예외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³⁷⁾ 이병주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해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위치에서 논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스뿐만 아니라 『그해 5월』에서는 이사마의 친구인 사카키와 노구치 다케시라는 일본인 인물을 통해 한일협정이 감추고 있는 본래 의도는 보다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① “(...) 과연 그들이 한일 간의 경제협정의 조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무슨 까닭으로 것처럼 다급하게 한일협정을 서둘렀는지.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는 당연하지만 정상화하겠다는 대원칙만 서면 정상화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안목으로 심사숙고하여 되도록이면 한국 측에 유리하도록 일본의 양보를 촉구하는 태도로 나갔어야 옳았다. 일본에 있어선 5억 달러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선 1억 달러도 대단한 돈이다. 그걸 10억 달러쯤 받아내도록 끈질긴 교섭을 왜 할 수 없었느냐 말이다. 명분은 얼마라도 있고 이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다. 계엄령 같은 것 선포하지 말고 학생들의 반일 데모가 두 배 세 배 격화되도록 방치해두었다가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³⁸⁾

36)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에세이인 『대통령들의 초상』에서 프레더릭 조스에 관한 언급이 있다. “프레더릭 조스는 4·19 직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단시일에 한국의 정국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마스터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기막힌 신문기자이다.”(141면) 이로 보아 이병주의 여러 소설에 걸쳐 등장하는 조스는 실제 인물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37) 이병주, 『그해 5월』3, 앞의 책, 126면.

38) 이병주, 『그해 5월』4, 앞의 책, 28면.

② “그런 빛나는 전통을 가졌는데 요즘은 어째서 테러가 없을까?”

“그만큼 발달한 거죠. 국민의 도의의식이 높아진 거죠.”

“도의의식? 웃기지 마시오. 국민 전체가 비굴해진 거요. 뇌물을 먹고 비대한 관료가 대로를 활보하도록 놔둬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멍멍거리고 사는 놈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사리를 노니는 자들을 그냥 뒹요? 도의의식이 높아진 게 아니라 도의의식이 시궁창에 빠져버린 거요.”

“일본엔 뇌물수수가 없소? 고대광실 높은 집에 멍멍거리고 사는 놈이 없소?”

“있지, 일본에도. 그러나 일본에선 뇌물 사건이 탄로났다 하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을 합니다. 몇 년이 걸려도 뿌리를 파내고 말아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 놈들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경위를 언제이건 증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 나라에선 어떻게 돼 있어요. 증권파동 사건이 세상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죠? 고급관료가 삼시간에 벼락부자 된 사태를 순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사회 정화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요. 내 말은.....”³⁹⁾

인용문 ①에서 사카키는 한일협상이 성과나 실리에 대한 계산이나 진지한 검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인용문 ②에서 정경연구소의 소장인 노구치는 한일협정에 대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당신들에게 불리”하지만 “박정권에겐 유리”하며, 한일협정이 “박정권에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한일협정에

39) 위의 책, 136면.

대한 비판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박정희에 대해 ‘추잡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병주가 박정희 정권과 한국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일본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은 대상을 객관화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가장 설득력 있는 논변은 대상의 객관화에 의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타자의 위치에 놓였던 일본을 오히려 비판의 주체로 세우고 한국의 현실을 타자화시키는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 현실은 보다 객관적으로 읽히게 된다. 더군다나 그것이 한일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은 상대국가의 국민인 일본인의 발언이라면 서술이 조금 더 힘을 가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사카키와 노구치의 발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태를 객관화 하려는 이병주의 의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읽히는데, 사카키와 이병주가 한일협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성도 그러하거나 노구치의 발언이 사실상 이병주 자신의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 특히 일제 식민지는 국민 모두를 테러리스트로 만들 동기였다고 주장하는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轉詞」⁴⁰⁾의 정람이나 나치에 의해 가족을 잃고 테러를 통해 복수를 감행하려고 했던 「소설 알렉산드리아」⁴¹⁾의 사라 안젤을 통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앞에 무력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을 대표’하는 테러리스트를 이야기 했던 이병주와 사회 정화를 위해 테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노구치의 말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한일협정에 대한 논평이 보다 객관적으로 읽히게 하려는 의도가 이병주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운 이사마가 아닌 일본인 노구치의 발언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일협정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술하

기 위한 노력의 한편에서 한일관계를 운명⁴²⁾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병주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일협정도, 유신체제도 “박정희적 인물의 불가피한 귀착점”이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은 곧 ‘운명’과도 직접 연결된다. 소설 속 이사마는 “운명이란 말이 등장하면 일체가 발언권을 잃는다.”고 되뇌면서도, 사회적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곧잘 ‘운명’⁴³⁾을 거론하는데, 이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국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⁴⁴⁾

운명은 서술의 개연성을 떨어뜨리고 무의미해 보인다는 이유로 역사 서술이나 문학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자체가 잘 구성된 인과관계나 논리에 의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병주에게 역사 역시 삶의 일부이기에 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삶이 유지되는 방식이 운명이라고 하는 우연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총화이자 대표성을 갖는 역사 역시 운명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병주의 인식이다.⁴⁵⁾ 때문에 이병주의 소설에서 운명은 눈앞에 펼쳐진 삶의 국면을 손쉽게 설명하려는 회피적 의도라거나 체념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42) 이는 1984년 9월 6일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기념 만찬 자리에서 일황 유인이 “불행한 과거는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소감을 쓴 칼럼에서 이병주가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존재”라고 기술한 것과도 이어진다(이병주, 「일황(日皇)의 사과를 받는 마음」,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암, 1986, 61면.)

43) 노현주는 이병주의 소설에서 ‘운명’이 역사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변화와 격동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12, 180면.)

44)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운명은 표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 표식은 신체적 특징 이외에 외부적 삶의 모든 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표식과 표식되어진 대상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 두 영역에서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것은 표식들의 모든 표면적 관찰과 잘못된 과정에서 불구하고 이들 표식들은 인과관계의 바탕 위에서 성격이나 운명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표식은 현존재에서 인과적으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상관관계는 결코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발터 벤야민, 『운명과 성격』,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34-335면.)

45) 정미진, 앞의 논문, 79면.

40) 이병주,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국문학』, 한국문학사, 1983.1.

41) 이병주, 「소설 알렉산드리아」, 『세대』, 1965.6.

는 인과적으로 설명하려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의 역사와 그 속에서 희생당했던 개인을 사실성 있게 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소설을 통해 역사의 문제에 천착해 왔던 이병주의 낙착점이라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 개인적이고 감정적 차원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운명론으로 귀결되는데, 운명론 안에서 개인이나 민족에 대한 감정은 약화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병주가 과거를 기술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해 5월』에서 사건은 ‘사건 발생→객관적 사실의 기술→인물의 논평 및 토론’과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전달된다. 『그해 5월』에서 현재적 관점에서 운명이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사건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논평은 소설 담론 특유의 성격을 의식하지 않은 방대한 자료의 기술이 있고 난 이후이다. 다양한 종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본 독자는 논리적 인과관계로 설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사건 당사자의 감정을 상상하여 서술하는 이병주의 특유의 서술까지 더해지면 운명이 그 무엇보다 명백한 역사의 근거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방식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는 증언자로서 이병주의 의도인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기 쉬운 감정적 접근을 피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이병주의 대일인식을 살피고, 소설 『그해 5월』에서 한일협정을 기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이병주의 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한 ‘일어 세대’이자 일본군으로 조국의 독립에 반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학병을 직접 경험한 이병주이기에 그가 가지는 대일인식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병주가 어떤 민족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는 태도 자체를 배격한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 위에 일본과의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열등감과 패배감, 학병 경험으로 인한 죄의식과 반성적 태도가 더해지고 있기에 한일관계를 개인적·감정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서사화에 있어 사실적 기록을 중요시하는 서술 방식은 『그해 5월』에서 한일협정을 기술할 때에 더욱 강조된다. 이때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의 논평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본인 인물을 내세워 한일협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타자화를 통한 객관화 전략으로 이병주가 한일협정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인물에 투영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한일관계를 ‘운명’으로 설명하는 것 역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찰의 결과이자 사실적인 삶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병주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을 적대시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일본의 발전상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일본을 다루는 칼럼과 에세이의 유사한 패턴—일본의 사회상에 대해 언급한 뒤에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배치하고, 객관적 검토에 의한 판단 이후에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이 그것을 일부 증명한다. 이병주에게 일본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역사적 상황에 휘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할 수밖에 없는, 한국

과 숙명적 관계에 놓인 나라이다. 그렇기에 운명을 수궁하고 상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실리적 태도라고 여겼으며, 이것이 대일인식에 있어 이병주의 예외성과 독특성이 발현되는 지점일 것이다.

[ABSTRACT]

Lee Byeong Ju's Perception of Japan and the Record
of the Korea-Japan Agreement

Jeong, Mi-ji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e Byeong ju's perception of Japan, and explain Lee's attitude toward Korea-Japan relations that focusing on way to describe the Korea-Japan agreement in the novel 'May of that year'. Since Lee was bor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ducated in Japanese, studied in Japan and directly experienced Japanese student soldiers, His perception of Japan is manifested in a complex form where inferiority, defeat, the sense of guilt and reflective attitude are intertwined. Lee, however, rejects the attitude itself of having extreme feelings toward any nation, so he expresses Korea-Japan relations should be approached objectively on a national level, not on a personal approach that is prone to tend to become emotional.

This attitude manifests itself in a way that maintains an objective distance in describing relations with Japan, In 『May of that year』, Lee not only makes a simple arrangement of objective data but uses remarks from various figures to critically record the Korea-Japan pact. At this time,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Korea-Japan agreement with Japanese figures can be said to be an objectification strategy through otherization. In the same context, explain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s "fate" would also be right to see it as a result of reflection on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an expression method of realistic life. In other words, Lee not glorify Japan's development by being hostile to Japan from a democratic standpoint or being obsessed with an inferiority complex. Rather, it is disclosing a position that it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our historical wrongs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and this will be the core of Lee's grand Japanese consciousness.

Key word : Lee Byeong ju, 『May of that year』, Perception of Japan, Complex, the sense of guilt, Korea-Japan Agreement, Objectification, Fate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세대』, 1965.6.)
- _____, 「변명」, 『마술사』, 한길사, 2006.(『문학사상』, 1972.12.)
- _____,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 북한문학연구소, 1974. 86-94면.
- _____,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 『1979』, 세종문화사, 1979, 247-257면
- _____, 「불행에 물든 세월」, 『사랑을 위한 獨白』, 회현사, 1979, 207-208면.
- _____, 「8월의 사상」,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한국문학』, 1980.11)
- 이병주·이어령, 「한국·한국인, 日本·日本人」,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82.8, 248-266면.
- 이병주, 『그해 5월』, 한길사, 2006.(『신동아』, 동아일보사, 1982.9~1988.8.)
- _____,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輓詞」,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한국문학』, 1983.1.)
- _____, 「일본(日本)을 존경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암, 1986, 30-47면.
- _____, 「일황(日皇)의 사과를 받는 마음」,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암, 1986, 60-62면.
- _____, 『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 단행본

-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 이종님, 「전후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전파에 관한 연구」,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 발터 벤야민, 「운명과 성격」,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34-342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2, 187-206면.

권혁태, 「한국의 일본 언설의 ‘비틀림」, 『현대문학의연구』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69-200면.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어문논집』61, 중앙어문학회, 2015, 349-382면.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12.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 『비평문학』52, 비평문학회, 2014, 229-255면.

_____, 「이병주 산문 연구」, 『문화와 융합』40,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399-430면.

송우혜, 「이병주가 본 이후라」, 『마당』, 1984.11, 50-64면.

이상록, 「증오와 선망, 배척과 모방 사이에서」, 『한국학연구』49, 한국학연구, 2018, 393-430면.

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상대박사학위논문, 2017.

정호웅, 「이병주 문학과 중국 학병 체험」,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중인문학회, 2013, 20-27면.

조영일, 「학병서사 연구」,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7, 459-486면.

접수일 : 2019. 11. 22 총평일 : 2019. 12. 17 게재확정일 : 2019. 12. 29